

‘99 秋季學術大會 歡迎辭

육군참모총장 대장 길형보

친애하는 한국군사운영분석학회 회원,
육·해·공군 장교 및 군무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본인은 먼저 이곳 계룡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육군 전 장병과 더불어 따뜻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곳 계룡대에서 군을 비롯한 학계와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군 지식경영의 과업」이라는 주제로 수준높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사 운영분석 학술대회는 국방운영 전반에 걸친 폭 넓은 연구와 상호교류를 통하여 군의 정보화·과학화를 선도하면서 각종 국방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군·관·민간의 안보공감대 형성에도 크게 공헌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이같은 그간의 업적을 높이 치하하며 앞으로도 「21세기 군」 건설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방분야 전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와 도전의 새천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새시대가 「정보화시대」를 이은 「지식혁명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벌써부터 그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저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당면한 IMF의 파고를 헤쳐나가면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처하기 위한 범 국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회전반의 혁신적인 변화와 한반도 주변의 불확실한 안보상황은 우리 국방분야에 있어서도 더한층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국방부분의 혁신을 추구함에 있어 민간경영 원리

나 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군 조직의 유연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도 군사정책·전략에서 리더십, 연구개발 등 국방업무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경영 또한 기존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당면해 있는 대내외적인 변화와 전환의 시기에 오늘의 학술대회와 「한국군사운영분석학회」의 활동에 거는 기대와 바램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멀리 이곳까지 찾아와 기조연설을 해주실 윤은기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민·관·군 각 분야에서 발전시킨 소중한 연구결과를 발표·토론해주실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학술대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보화군, 과학군, 지식기반군을 건설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시와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온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대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